

新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2024. 3.

※ 「新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목 차 ▶

요 약

1. 검토배경 / 1
2. 40대 인구: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 / 3
3. 40대 취업자: 제조업·남성 중심 감소 / 5
4. 40대 비취업자
: 쉬었음·비자발적 퇴직·경력단절 여성 증가 / 9
5. 결론 및 시사점 / 13

< 요약 >

1. 검토 배경

▶ 최근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40대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40대 인구의 산업구조 전환 시 적응 취약성, 정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특성 등이 더해져 이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新) 고용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불확실성과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의 인력감축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을 가진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 특성상 40대 근로자가 인력조정의 우선순위가 될 우려가 큼.

▶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는 40대 고용시장의 흐름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40대 인구: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

▶ **(규모)** 40대 인구는 796만명(2023년)으로 2014년 대비 약 75.8만명(△8.7%) 감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638만명으로 2014년 대비 67.3만명(△9.5%) 감소

▶ **(특성)** 같은 기간 40대 기혼자 수는 큰 폭으로(147.4만명↘, 기혼율 9.8%p ↘) 줄었고, 대졸자 비중은 18.6%p 증가하여 **40대 인구의 비혼·고학력화 등 사회특성적 변화가 두드러짐.**

3. 40대 취업자: 제조업 · 남성 중심 감소

▶ **(취업자 규모)** 40대 취업자 수는 626만명(2023년)으로 2014년 대비 약 64만명(△9.3%) 감소.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대부분 40대 인구감소에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성별)** 40대 취업자 626만명 중 남성은 367.7만명(58.7%), 여성은 258.3만명(41.3%) 차지(2023년). 40대 취업자 수는 남성은 2015년, 여성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22년부터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

- ▶ **(산업별)** 40대 취업자는 제조업(18.6%), 도·소매업(12.6%), 교육서비스업(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 건설업(7.8%) 등의 순으로 많이 종사(2023년). 2014년과 비교해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4만명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11.2만명 증가

4. 40대 비취업자: 쉬었음·비자발적 퇴직·경력단절 여성 증가

- ▶ **(비취업자 규모)** 40대 실업자 수는 2018년 16.8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2.1만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규모.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58.2만명(2023년)으로 2014년과 비교해 8.5만명 감소
- ▶ **(주요 특징)** ①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5만명(2023년)으로 2014년과 비교해 8.0만명 증가. ②2019년 이후 40대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의 비중이 40%를 꾸준히 상회했으며, 그 비중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52.1%), 2021년(52.4%)에 특히 높았음. 또한, ③40대 경력단절 여성 수는 59만명(2023년)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대 경력단절 여성 수를 넘어섬.

5. 시사점

- ▶ **(사시점)** 최근 40대 인구는 취업자 감소, 고용률 둔화, 유휴노동력 증가,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심화,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등 일자리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향후 40대 인구·노동시장 정책은 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응, ②학력 과잉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③고학력·남성 노동시장 이탈 방지, ④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필요
- ▶ **(정책제언)** 경제의 허리층이자 신고용취약계층인 40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 ②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③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최근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40대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40대 인구의 산업구조 전환 시 적응 취약성, 정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특성 등이 더해져 이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新) 고용취약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 40대는 생애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 부양과 소비, 납세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연령계층임.
 - 그러나 최근 통계로 확인되는 40대 고용은 과거에 비해 취약한 모습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비)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36.6만명, 50대 5.9만명, 30대 5.4만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는 5.4만명 감소(2023년). 특히 40대 남성 취업자가 6.7만명 감소하여 20년만에 최저수준 기록
 -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4.1.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8만 7천명으로 33만 5천명(2.2%) 늘었으나, 40대 가입자 수는 358만 9천명으로 2천명 감소(2023년 11월, 전년동월비). 이는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 ※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 2023.12.
 - 특히 40대 인구는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AI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 가중
 - 40대는 기술혁신, 디지털·탄소중립 등에 의한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기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층
 - ※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국내 일자리의 약 12%(341만개)가 대체될 가능성이 큼(한국은행, 2023).

- 또한 40대 인구는 정부 일자리 및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정부 일자리 대책은 취업 능력이 약한 30대 초반까지의 청년과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한편 글로벌 불확실성과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의 인력 감축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을 가진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 특성상 40대 근로자가 인력조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

* 근속연수가 길수록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임금체계 특성상 기업이 체감하는 40대 근로자의 비용부담이 높음.

▶ 우리나라는 근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 가량 많을 정도로 임금연공성이 높음(경총, 2021).

※ 2023년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49.4세(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는 40대 고용시장의 흐름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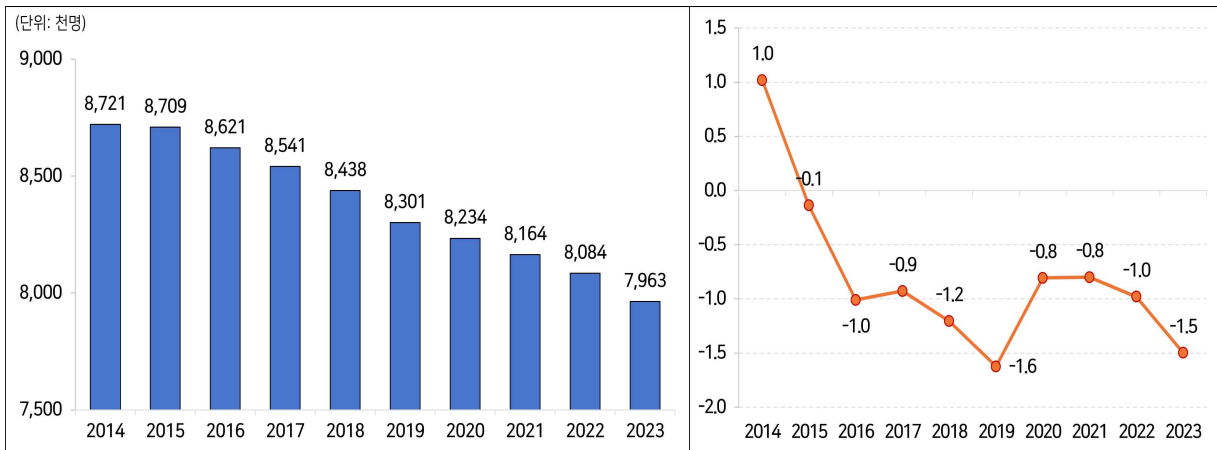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40대 고용시장을 성별, 학력별, 산업별 등 부문별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파악

- 취업자 고용현황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여 40대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① **(인구 규모)** 40대 인구 규모는 약 796만명(2023년)으로 2015년 이래 9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0.8% 감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허리층이라 할 수 있는 40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 그림 1. 40대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경제활동)** 40대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수는 638만명이며, 이들이 40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80.1%(2023년)

- 2014년과 비교해 40대 경제활동인구는 67.3만명 감소했으며, 4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40대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0.8% 감소하여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표 1. 40대 경제활동인구(만명)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활동인구	705.4	705.4	698.1	693.1	683.4	665.6	651.0	646.3	644.2	638.1
경제활동참가율	80.9	81.0	81.0	81.1	81.0	80.2	79.1	79.2	79.7	8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③ **(혼인)** 한편, 40대 인구 중 혼인 경험(이혼, 사별 포함)이 있는 기혼자 수는 650.5만명, 기혼율은 81.7%로 집계(2023년)

- 2014년과 비교해 40대 기혼자 수는 147.4만명 감소해 인구 감소분(75.8만명)보다 더 크게 하락('14년대비 '23년 기혼율 9.8%p ↓)
- 2023년 기준 성별 기혼율은 남성 75.8%, 여성 87.8%로 여성이 12.0%p 높게 나타났으며, 2014년과 기혼율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기혼율이 하락한 가운데 남성 기혼율이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짐.

※ 40대 남성 기혼율: ('14) 87.8% → ('23) 75.8%, 12.0%p ↓
 40대 여성 기혼율: ('14) 95.3% → ('23) 87.8%, 7.5%p ↓

< 표 2. 40대 인구의 기혼자(만명) 및 기혼율(%)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혼자	797.9	786.2	768.2	754.2	734.8	715.0	699.0	686.8	670.6	650.5
기혼율	91.5	90.3	89.1	88.3	87.1	86.1	84.9	84.1	82.9	81.7
남성	87.8	86.1	84.4	83.5	82.0	80.8	79.4	78.6	77.3	75.8
여성	95.3	94.6	93.9	93.3	92.3	91.6	90.6	89.8	88.8	87.8

주: 기혼자는 유배우, 이혼, 사별을 포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④ **(학력)** 40대 인구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전문학사) 이상 비중은 63.5%('23년)로 고졸 이하(36.5%)보다 크게 높았음. 2014년과 비교하면 대졸 이상 비중이 큰 폭(18.6%p) 증가해 인적자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시사

- 2017년을 기점으로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이하를 앞지르며 40대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
- 이 같은 고학력 현상은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진 인구계층('94~'02학번; 1975~1983년생)이 40대에 진입하면서 이루어진 변화로 추정

※ 연도별 대학진학률(% , 한국교육개발원)
 : 45.8('94)→ 60.1('97)→ 68.0('00)→ 74.2('02)

< 표 3. 40대 인구의 학력 분포(%)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졸 이상	44.9	46.1	47.9	50.1	52.6	55.1	56.8	59.3	61.0	63.5
고졸 이하	55.1	53.9	52.1	49.9	47.4	44.9	43.2	40.7	39.0	3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 취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 폭이 컸고,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짐. 40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 등은 지난 10년간 증가했고 주된 직장 외에 부업에 종사하는 40대 인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음.

① **(취업자 수)** 2023년 40대 취업자 수는 626만명으로 2014년 대비 63.6만명 감소했고, 전년대비 5.4만명 감소

☞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2.7만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취업자는 5만명 감소하며 취약성을 드러냄(20대와 40대만 감소).

< 표 4. 연령대별 취업자 수(만명)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2,590	2,618	2,641	2,673	2,682	2,712	2,690	2,727	2,809	2,842
20~29세	356	362	366	366	370	375	360	371	382	374
30~39세	581	573	567	564	558	553	536	526	530	536
40~49세	690	689	683	678	667	650	635	631	631	626
50~59세	595	607	615	630	635	644	636	642	662	668
60세 이상	345	363	385	409	432	470	508	541	586	6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성별)** 40대 취업자 626만명 가운데 남성은 367.7만명(58.7%), 여성은 258.3만명(41.3%)을 차지(2023년). 전년대비 취업자 수는 남성은 2015년, 여성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22년부터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

☞ 40대 여성인구가 고용 회복 기조로 전환된 것과 달리, 40대 남성 인구의 고용 부진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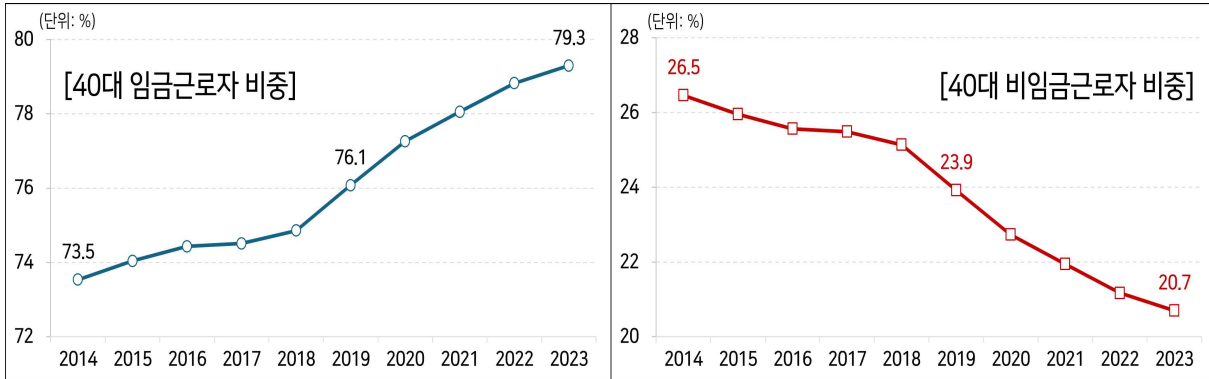
< 표 5. 40대 성별 취업자 수(만명) 및 증감률(%)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89.6	689.2	683.2	678.3	666.6	650.4	634.6	631.1	631.4	626.0
남성	409.1 (1.8)	406.4 (-0.6)	402.6 (-0.9)	399.8 (-0.7)	393.1 (-1.7)	383.9 (-2.3)	376.2 (-2.0)	374.6 (-0.4)	374.3 (-0.1)	367.7 (-1.8)
여성	280.6 (1.9)	282.7 (0.8)	280.7 (-0.7)	278.5 (-0.8)	273.5 (-1.8)	266.5 (-2.6)	258.4 (-3.1)	256.4 (-0.8)	257.0 (0.2)	258.3 (0.5)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③ **(종사상지위별)** 40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수는 496.4만명으로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수는 129.6만명으로 20.7% 차지(2023년). 40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

< 그림 2. 40대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④ **(산업별)** 40대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18.6%), 도·소매업(12.6%), 교육서비스업(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 건설업(7.8%) 등의 순으로 종사(2023년). 2014년과 비교해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4만명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약 11.2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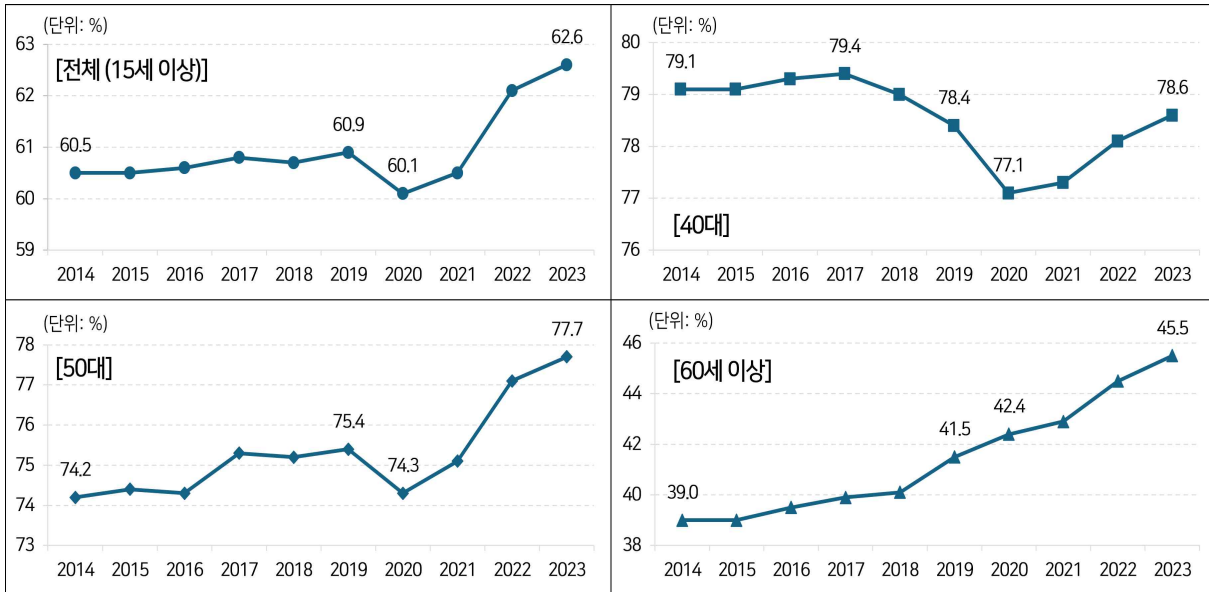
< 표 6. 주요 산업별 40대 취업자 수(만명)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89.6	689.2	683.2	678.3	666.6	650.4	634.6	631.1	631.4	626.0
제조업	131.9	136.7	134.5	129.4	127.0	120.7	118.6	118.2	119.0	116.5
도소매업	108.7	104.7	101.4	102.2	95.4	93.3	88.3	81.1	81.1	78.6
교육업	55.2	54.4	56.0	61.4	58.8	56.9	54.5	54.0	53.3	54.5
보건업	40.6	42.2	42.7	44.1	46.3	47.0	46.6	50.7	50.7	51.8
건설업	60.2	60.2	57.0	59.5	60.7	57.4	53.2	53.1	52.1	4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⑤ **(고용률)** 최근 10년간 40대 고용률은 2017년 79.4%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추세로 전환. 이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나타나는 고용률 둔화 기조로 40대의 고용 부진이 2017년 이후 심화된 것으로 파악됨.

< 그림 3. 주요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 40대 고용변화 요인 분해

- ▶ 고용변화 요인 분해 모형에 따르면 고용변화는 인구요인, 경제활동 참가요인, 취업률 요인으로 분해 가능(FRB of Kansas City(2006), 한국은행(2019))

$$\ast E_t = P_t \times \frac{L_t}{P_t} \times \frac{E_t}{L_t} = P_t \times l_t \times e_t \Rightarrow \frac{\dot{E}}{E} = \frac{\dot{P}}{P} + \frac{\dot{l}}{l} + \frac{\dot{e}}{e},$$

(E_t = 취업자 수, P_t = 15세이상 인구, L_t = 경제활동인구,
 l_t = 경제활동참가율, e_t = 취업률)

- ▶ 동 모형에 따르면 2014~2023년간 40대 취업자 수 변화의 주된 원인은 40대 인구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
- ▶ 다만 최근 40대 취업자 수 변화는 인구효과는 물론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한 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기인한 것으로 보임. 즉 최근 ('18~'23년)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변화' 요인에 더해 40대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둔화'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

< 40대 취업자 증감의 요인 분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취업자 (①+②+③)	1.8	-0.1	-0.9	-0.7	-1.7	-2.4	-2.4	-0.5	0.0	-0.9
인구 ^①	1.0	-0.1	-1.0	-0.9	-1.2	-1.6	-0.8	-0.8	-1.0	-1.5
경활률 ^②	1.1	0.1	0.0	0.1	-0.1	-1.0	-1.4	0.1	0.6	0.5
취업률 ^③	-0.2	-0.1	0.2	0.0	-0.4	0.2	-0.2	0.1	0.4	0.1

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제공하는 통계청 자료의 한계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비정규직 근로자)** 2023년 40대 임금근로자 497.6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131.1만명으로 26.3%를 차지했고(2023년), 2014년보다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 40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3.3만명, 시간제 47.0만명, 한시적 80.7만명, 파견·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 34.3만명으로 집계(2023년)

※ 2014년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 45.4%, 시간제 근로자 36.2%, 한시적 근로자 13.2% 순으로 증가한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34.7% 감소

< 표 7. 고용형태별 40대 임금근로자 수(만명)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임금근로자	503.2	507.2	503.9	504.4	497.0	497.9	490.0	495.8	497.8	497.6
정규	369.6	375.2	372.5	373.1	371.4	363.3	359.2	353.9	365.5	366.5
비정규	133.6 (26.6)	132.0 (26.0)	131.4 (26.1)	131.3 (26.0)	125.5 (25.3)	134.6 (27.0)	130.8 (26.7)	141.9 (28.6)	132.3 (26.6)	131.1 (26.3)
기간제	50.4	54.3	51.7	54.1	48.2	58.4	65.6	79.6	73.3	73.3
시간제	34.5	35.4	40.1	43.1	40.5	48.2	42.4	47.5	46.2	47.0
한시적	71.3	73.6	68.2	72.3	68.5	79.9	78.5	91.0	86.3	80.7
비전형	52.5	50.4	50.5	46.4	46.1	43.5	40.0	41.9	35.5	34.3

주: ()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의미;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는 중복될 수 있어 비정규직 유형별 총합이 전체 비정규직 숫자보다 클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연도 8월 기준)

⑦ **(부업인구)** 주된 일자리 외 추가 소득을 위해 부업에 종사하는 40대가 증가. 최근 10년간 40대 부업인구*는 8~10만명 내외 규모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8.4만명으로 12.5% 감소했던 부업 인구가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된 일자리 외에 추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통계청)

☞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팬데믹 이후 경영 악화, 고금리 등의 어려움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 표 8. 40대 부업인구 수(만명) 및 증감률(% , 전년비)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업 인구	10.6 (6.0)	11.6 (9.4)	9.4 (-19.0)	8.7 (-7.4)	8.9 (2.3)	9.6 (7.9)	8.4 (-12.5)	8.8 (4.8)	9.5 (8.0)	9.8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40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감소세에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40대 인구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40대 비취업자의 주요 특징은 '쉬었음' 인구 증가,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 상승, 40대 경력단절 여성 증가 등임.

❶ **(실업자)** 40대 실업자 수는 2018년 16.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2.1만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규모

☞ 40대 취업자·실업자 수 동반 하락 현상은 40대 인구 자체의 감소 영향

- (실업률) 2023년 40대 실업률은 1.9%로 최근 10년간 최저수준

< 표 9. 40대 실업자 현황(만명) 및 비중(%)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	15.8	16.3	14.9	14.8	16.8	15.3	16.4	15.2	12.9	12.1	
실업률	2.2	2.3	2.1	2.1	2.5	2.3	2.5	2.4	2.0	1.9	
성별	남성	9.0 (56.7)	8.3 (50.9)	7.8 (52.7)	8.2 (55.3)	9.8 (58.6)	9.2 (60.6)	9.6 (58.6)	8.6 (56.2)	6.4 (49.6)	6.9 (57.1)
	여성	6.9 (43.3)	8.0 (49.1)	7.0 (47.3)	6.6 (44.7)	7.0 (41.4)	6.0 (39.4)	6.8 (41.4)	6.7 (43.8)	6.5 (50.4)	5.2 (42.9)
학력	대졸	6.1	6.8	5.7	6.7	7.4	6.4	7.4	6.9	6.7	6.2
	이상	(38.3)	(41.4)	(38.3)	(45.3)	(43.9)	(42.0)	(45.0)	(45.2)	(52.0)	(50.8)
	고졸	9.8	9.5	9.2	8.1	9.4	8.9	9.0	8.3	6.2	5.9
이하	(61.7)	(58.6)	(61.7)	(54.7)	(56.1)	(58.0)	(55.0)	(54.8)	(48.0)	(4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성별) 40대 실업자 중 남성은 6.9만명(57.1%), 여성은 5.2만명(42.9%)으로 집계(2023년). 특히 2023년 남성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5천명 증가한 데 비해 여성 실업자는 1.3만명 감소하여 최근 실업자 수 감소는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

- (학력별) 학력별 40대 실업자 수를 보면 대졸 이상 실업자가 6.2만명, 고졸 이하 실업자는 5.9만명으로 유사한 규모(2023년). 2014년과 비교하면 40대 대졸 이상 학력의 실업자는 증가하고 고졸 이하 실업자는 감소했는데, 이는 40대 고학력자 증가에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

- (체감실업자) 공식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구직자 또는 취업 가능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한 40대 체감실업자 수는 약 41만 9천명(2023년)으로 지난 10년간 감소세

※ 40대 체감실업자 추이(만명, 통계청)
: 55.8('15)→ 47.9('17)→ 54.0('19)→ 61.1('21)→ 41.9('23)

② (비경제활동인구) 2023년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58.2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8.5만명 감소. 이는 상당 부분 40대 인구감소에 기인

※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통계청)

< 표 10. 40대 비경제활동인구 현황(만명) 및 비중(%)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	166.7	165.5	164.0	161.1	160.4	164.4	172.4	170.1	164.2	158.2	
쉬었음	18.5	19.8	20.0	18.8	19.6	22.3	27.5	27.5	26.3	26.5	
구직 단념자	4.9	5.4	5.8	5.0	4.9	6.3	7.4	7.6	5.1	4.2	
성별	남성	23.2 (13.9)	26.1 (15.8)	25.1 (15.3)	24.0 (14.9)	24.6 (15.3)	28.3 (17.2)	32.8 (19.0)	32.4 (19.1)	30.5 (18.6)	30.5 (19.3)
	여성	143.4 (86.1)	139.3 (84.2)	138.9 (84.7)	137.1 (85.1)	135.8 (84.7)	136.1 (82.8)	139.6 (81.0)	137.7 (80.9)	133.7 (81.4)	127.7 (80.7)
학력별	대졸 이상	69.2 (41.5)	70.7 (42.7)	72.1 (44.0)	76.0 (47.2)	77.3 (48.2)	83.8 (51.0)	88.0 (51.0)	88.9 (52.3)	86.2 (52.5)	86.3 (54.6)
	고졸 이하	97.5 (58.5)	94.8 (57.3)	91.9 (56.0)	85.1 (52.8)	83.1 (51.8)	80.6 (49.0)	84.4 (49.0)	81.2 (47.7)	78.0 (47.5)	71.9 (45.4)

주: ()안은 성별,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성별) 2023년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은 30.5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7.3만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127.7만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5.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을 이탈한 40대 남성 규모가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86.3만명, 고졸 이하는 71.9만명으로 마찬가지로 빠른 고학력 현상이 관찰됨(2023년).
- (쉬었음)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쉬었다'고 답변한 인구 수는 26.5만명(2023년)으로 2014년과 비교해 8.0만명 증가

- (구직단념자) 40대 구직단념자는 약 4.2만명(2023년)으로 코로나19 시기 7만명대까지 증가했으나, 팬데믹 종식 이후 빠르게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음' 인구가 많아진 것은 그만큼 일할 의욕을 잃고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40대 인구가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

③ **(비자발적 퇴직자)** 40대 퇴직자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인구는 16.4만명(2023년)으로 지난 10년간 감소세. 다만 이는 40대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며, 40대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

* 최근 1년 이내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사업 부진' 등의 사유(통계청)

- 2019년 이후 40대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이 4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52.1%), 2021년(52.4%)에 특히 높았음.

< 표 11. 40대 퇴직자 현황(만명) 및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40대 퇴직자	50.6	52.6	47.6	43.4	43.6	45.6	51.0	44.6	38.8	38.9
비자발적 퇴직자	18.8 (37.2)	19.8 (37.7)	18.5 (38.9)	16.7 (38.4)	17.2 (39.5)	18.7 (41.1)	26.6 (52.1)	23.4 (52.4)	17.7 (45.7)	16.4 (42.1)
직장의 휴·폐업	2.0	2.5	2.1	1.8	1.9	2.1	4.2	3.0	2.5	2.2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2.0	2.2	2.8	2.9	3.3	3.6	5.5	4.8	3.2	2.9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8.4	9.0	7.8	6.4	6.6	6.6	8.6	9.0	8.2	7.9
사업부진 등	6.5	6.2	5.8	5.6	5.4	6.5	8.3	6.5	3.8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④ **(경력단절 여성)** 2023년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59만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대 경력단절 여성 수를 넘어섬. 이는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 경력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된 결과로 추정

* 여성 평균 초혼연령(세, 통계청): 28.9('10) → 29.9('15) → 31.3('22)

- 2014년과 비교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약 81.5만명 감소했으나, 40대 경력단절 여성 감소분은 6.7만명에 불과하며 최근 다시 증가세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통계청)

☞ 40대 인구 및 기혼율이 감소함에도 경력단절 여성 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40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움을 시사

< 표 12.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인구 수(만명) 추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216.4	207.3	192.4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134.9
15~29세	19.0	17.7	16.1	14.4	13.9	11.8	9.7	7.5	5.7	6.4
30~39세	112.0	109.1	101.4	93.3	88.6	80.6	69.5	65.5	60.0	54.4
40~49세	65.7	63.0	60.3	60.6	66.0	63.4	58.0	57.9	58.8	59.0
50~59세	19.7	17.6	14.6	14.8	16.1	14.2	13.4	13.8	15.2	15.0

주: 연도별 상반기 기준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가 결론

- ① **(40대 인구 특성)** 40대 인구는 796만명(2023년)으로 2014년 대비 약 75.8만명($\Delta 8.7\%$) 감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638만명으로 2014년 대비 67.3만명($\Delta 9.5\%$) 감소
- 같은 기간 40대 기혼자 수는 큰 폭으로(147.4만명 \Downarrow , 기혼율 9.8%p \Downarrow) 줄었고, 대졸자 비중은 18.6%p 증가하여 40대 인구의 비혼·고학력화 등 사회 특성 변화가 두드러짐.
- ② **(40대 취업자)** 40대 취업자 수는 626만명(2023년)으로 2014년 대비 63.6만명($\Delta 9.3\%$) 감소. 취업자 수 감소는 대부분 40대 인구감소에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은 감소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하는 등 산업 구조변화가 진행
 - ※ 40대 퇴직자의 40~50%가 비자발적 퇴직자임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40대 인구의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있음.
- ③ **(40대 비취업자)** 40대 실업자 수는 12.1만명(2023년)으로 지난 10년간 감소세에 있고 실업률 역시 1.9%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158.2만명(2023년)으로 2014년 대비 8.5만명($\Delta 5.1\%$) 감소.
- 40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줄었으나 '남성'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성별·학력별로 뚜렷한 편차 존재
 - 특히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40대 유희노동력 증가가 우려되며,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 비중도 높은 수준임.

나 시사점

- ▶ 최근 40대 인구는 취업자 감소, 고용률 둔화, 유휴노동력 증가,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심화,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등 일자리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이러한 40대 고용시장 현황과 40대의 비혼·고학력화 등 인구 특성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40대 인구·노동시장 정책은 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응, ②학력 과잉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③고학력·남성 노동시장 이탈 방지, ④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필요
- ▶ 특히 우리 노동시장에서 40대 인력이 지닌 생산성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일자리 대책이 요구됨.

(1)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

- ① **(재진입이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 40대 조기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쉽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환경 조성
 - 파견·기간제 근로자 활용 제약 같은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 40대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원활하게 해야 함.

- ☞ 파견허용업무 확대, 기간제 허용기간 연장(2+2) 등 제도 개선
-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법정 유연근무제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근무방식을 개발·보급

- ②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연공에 따른 보상은 40대 인력의 고용유지 및 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이에 現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하여 40대 인력의 채용 여력을 확보할 필요

※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배, 韓·日: '20년, 그 외: '18년)
[韓] 2.95 [日] 2.27 [獨] 1.80 [佛] 1.65 [英] 1.51 [EU15 평균] 1.65

-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고용 환경이 바뀌고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집단적 동의없이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함.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임금유연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규정을 협의 또는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① **(고용 유연성 제고)** 해고법제 개선 등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력 증대

-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이 양질의 일자리 순환을 저해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우리 노동시장 경쟁력('19년, 141개국 대상, WEF)
 [노동시장 유연성] 97위 [고용 및 해고 관행 경쟁력] 102위

- 주요 선진국들이 일신상·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해고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무능력 부족이나 적격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인력조정이 쉽지 않음.

※ 미국은 계약에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보통법상 해고자유 원칙에 의해 자유로운 해고 가능**

☞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고법제를 개선하여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

②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할 필요

- 고학력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와 비경제활동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고도화하고 숙련 수요를 다양화하는 전략 필요

- ☞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2-for-1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같은 규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규제 총량 관리
- ☞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지원

(3)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

- ① **(신산업 분야 재교육 및 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40대 중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은 근로생애 연장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미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신산업 분야 등에서 일자리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문의 훈련정보를 제공하고, 40대 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 탄소중립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40대 인력의 리스킬링(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 지원
 - 사회와 기술 변화가 업종별·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양함을 감안해 지역, 산업, 직종,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 수립이 효과적

- ☞ 신산업 분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기회 확대
- ☞ 중소제조업, 건설업종 남성,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 맞춤형 취업 정보와 교육훈련 제공

- ② **(비경제활동 인구 대상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노동시장 참여 의지와 역량이 있는 비경제활동 40대 인구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빠르게 탐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 40대 인력이 지닌 우수한 인적자본과 경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년층에 적합한 고숙련 직무(창직·창업)를 적극 개발·확산할 필요

- 40대 중년층을 위한 정부의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
 - ※ 정부의 청년 및 고령자 대상 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40대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미미한 수준
- 이전 세대에 비해 디지털 역량이 높아진 40대의 특성을 반영해 생애 경력 설계, 창업 알선 등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여 편의성 제고

☞ 정부의 40대 중년층 대상 고용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